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
-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발표
-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성공 개최 다짐

□ 정부는 9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총리 한성숙, 김수녕, 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2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스포츠정책비전 2030',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2027 충청) 준비 상황' 등을 발표·논의했다.

- **(일시/장소)** 9. 4.(금)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정부 : 총리(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 등 위원
민간 : 고려대학교 양궁팀 김수녕 감독(공동위원장),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법무법인 YK 서정화 변호사,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 하형주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 **(안건)** ① 스포츠 정책비전 2030
②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보고

□ 특히 이번에는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스포츠 전문가 6명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 민간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김수녕 감독이, 위원은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법무법인 와이케이(YK)의 서정화 변호사,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스포츠 정책비전 2030 >

1. 건강한 삶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 스포츠가 일상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 국민 건강관리를 스포츠와 연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처방을 지원한다. 스포츠 참여 포인트 ‘튼튼머니’ 지급 대상을 2030년 120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7년 체력 인증 등급 및 운동 기록과 비례해 할인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 유·청소년 스포츠활동을 확대하는 다양한 종목별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청년문화패스’를 내년부터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한다. 고령층 프로그램과 뉴 스포츠도 개발해 스포츠 참여를 뒷받침한다.
 - * 기존의 주요 스포츠를 기반으로 규칙이나 장비 등을 간소화한 대안적 스포츠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반을 확충한다.
 - 2030년까지 기존보다 건립비용과 규모를 줄인 ‘경량형’ 모델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110개소를 신규로 공급한다. 아울러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지붕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월드컵경기장과 노후 육상 경기장을 새 단장(리모델링)하는 등 이용자 체감형 개보수를 추진한다.
 -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 원이 초과하는 직장인에게도 스포츠시설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헬스장, 요가 및 필라테스장 등에서 발생하는 ‘떡튀’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 2028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적’ 지표를 신설하여 안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1천 명 이상 참가 체육행사는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최자와 지자체가 행사 정보와 안전 계획을 공유하는 체육행사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경쟁력 있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 체육단체 혁신을 완수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여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을 재구축한다.
 - 대한체육회에 외부 출신 상임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조직을 확대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8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했고, 대한체육회장의 총 임기 제한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 수준의 경기·훈련시설을 조성하여 전문 선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공중 동작 시설(에어매트)을 조성하고,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과 테니스장을 전면 새 단장(리모델링)해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확보한다.
- 체육계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훈련하도록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학생선수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단체종목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개인 경기력과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한다.
 - 지도자와 심판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국가대표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도자의 역량을 높인다. 상임심판 인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를 지원해 전문성과 판정 신뢰도를 높인다.
-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확충한다. 내년부터 부상 등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적립형 공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의 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 또한, 내년부터 윤리적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징계 이행력을 강화하며, 폭력이력자의 체육계 진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케이-스포츠산업

- 산업 혁신과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하여 스포츠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스포츠 기업이 체육 기금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기반 신용용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공지능·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인운동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 추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스포츠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등도 지원한다.

- 스포츠 경기와 케이팝 공연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중·대형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돐구장을 조성한다. 광명 경륜장과 미사경정장을 레저 체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관광과 연계도 강화한다.
- 프로스포츠가 국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프로축구에 영상 기반 판정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경기장 잔디와 관람환경도 개선해 선수에게는 최고의 경기력을, 관람객에게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다.
- 불법 스포츠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 스포츠포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공식 서비스, 경기 중 실시간 발매, 발행 종목 확대, 환급률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사이트 실시간 탐지체계 구축 등도 병행한다.

4.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체육

- 장애인 스포츠 접근성을 높여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하고, 운동 참여 의지가 낮은 장애인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강습을 제공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도 2027년 3만여 명으로 늘린다.
 - 반다비체육센터를 2030년까지 40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반다비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연계해 프로그램, 이동 수단을 지원한다.
- 장애인 전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외 위상을 강화한다.
 - 이천선수촌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중회복시설과 스포츠 의·과학시설을 갖춘 훈련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제 규정에 맞도록 종목별 등급 분류 규정을 제·개정하여 세계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가 참여하는 선수발굴단을 운영하여 꿈나무 선수-신인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로 개편한다.

5. 국제 위상을 높이는 국제 스포츠

-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스포츠 인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한다.
 - 국제경기대회가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유치, 개최, 브랜드화, 사후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화한다. 국제대회를 각 지역의 체육·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스포츠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함께 성장시킨다.
 - 아울러, 지자체가 수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를 문체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하도록 해 조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국제 스포츠기구와 종목별 국제연맹 등의 선수 위원 배출과, 행정가·심판·반도핑 등 다양한 직군의 국제교류 및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원과 세계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7만여 점의 유물로 기록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2026년 10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 등 한국 전통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전승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②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염홍철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홍보·숙박·식음·수송·의료·폭염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 ‘2027 충청’은 2027년 8월 1일(일)부터 12일(목)까지 12일간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150여 개 국가에서 선수단·임원을 포함한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이 주최하며, 전 세계 대학생이 스포츠로 교류하는 2년 주기 종합 대회로서 ‘2027 충청’은 한국의 4번째 유니버시아드대회이다.
- 한 총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세계 젊은이의 스포츠 축제인 ‘2027 충청’을 통해 우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정부는 대회 전 분야와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요
 3.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요약)

따로 붙임 스포츠 정책비전 203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정 송 (044-200-2328)
		담당자	서기관	정아봉 (044-200-2330)
(위원회, 비전 전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훈 (044-203-3111)
		담당자	서기관	이혜영 (044-203-3112)
(2027 충청 준비상황)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홍승모 (044-203-3163)



붙임 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 위원장

사 진	소속/직위	성명(생년)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감독	김수병 (1971) ※ 위원장	• 前 대한양궁협회 이사 • 前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양궁코치 ※ 국제양궁연맹 선정 '20세기 최고의 선수' 선출

□ 위원

사 진	소속/직위	성명(생년)	주요 경력
	안양대학교 교수	박성배 (1980)	• 前 한국체육학회/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 • 現 경기도체육회 인사위원장
	법무법인YK 변호사	서정화 (1990)	• 前 모굴스키 국가대표 • 現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윤지운 (1980)	• 現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AUSF) 정보기술위원회 위원 • 現 대한체조협회 심판위원장
	고려대학교 교수	한남희 (1965)	• 前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現 문화체육관광부 경영평가단원
	스포츠 인권연구소 사무총장	함은주 (1973)	• 前 서울시체육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現 대한플로어볼협회 이사

- 당연직 :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① **목적** : 국가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협력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② **근거** : 「스포츠기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③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16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민간위원(당연직 3인**+위촉직 6인***) (시행령 제3조)

* 문체부(간사), 재경·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복지·기후·가족·국토·해수·중기부, 기획처, 국조실
**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국무총리가 위촉(민간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 필요 시 위원회 위원이 아닌 부처·민간 전문가 등 참석 가능하며,
안전 협의 등을 위해 차관조정회의(의장: 문체부 2차관) 운영
- ④ **기능 및 역할**

○ 스포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주요 시책 평가·점검

○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주요 정책 수립·조정 등
- ⑤ **운영** :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시행령 제4조)

1.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요

- **[대회개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육과 문화를 교류하는
2년 주기 세계 대학 종합 스포츠 대회

* (직전대회) '25 독일 라인루르 (한국개최) (하계) '03년 대구, '15년 광주 / (동계) '97년 무주전주

- (기간/장소) 2027. 8. 1.(일) ~ 8. 12.(목), 12일간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주최/주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 (개최종목) 18개 종목(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태권도(장애인포함),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골프, 조정, 비치발리볼)
- (참가인원) 150여 개국, 15,000여 명(선수단·임원, FISU 관계자·미디어 등 포함)
* 참가자격: 18세 이상 28세 이하 대학생(개최 직전년도 졸업생 포함)
- (총사업비) 5,632억 원(국비 1,642억, 지방비 3,009억, 자체수입 981억)
- (경기시설) 경기장 22개소(신축 3개), 훈련장 26개소(신축 1개)

2. 준비현황

①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공적 대회 개최 기반 마련

-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위원장 체계에서 **단일 조직위원장 체계로 전환***('24.3.~)
* '26.8월 염홍철 現 조직위원장 취임(전임: 강창희 조직위원장, '24.3.~'26.7.)
- 기존 공동위원장(4개 시도지사)은 명예위원장으로 추대, 자문 역할 수행
- **(현장 중심 조직 전환)** 4개 시도·중앙부처·민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현장형 조직개편**('26.1., 383명)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운영 체제 가동

② 빈틈없는 대회 기반시설 조성

- **(경기시설)** 경기장(훈련장) 신축(3개소)* 및 기존 시설 개보수를 적기에 완료('27.6.까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체조)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정률 49%(계획 49%, '27.5.준공), ▲(테니스) 충남 국제 테니스장 공정률 44%(계획 30%, '27.5.준공), ▲(농구) 오창 국민체육센터 공정률 55%(계획 56%, '26.12.준공)
- **(선수촌)** ^(주선수촌) **세종선수촌**은 신축 LH 아파트 활용, '27.7월 개촌 예정이며, 원거리 경기(비치발리볼)를 위해 **보령에 제2선수촌 운영**
* ▲(세종) 합강(8,024명, '27.6월 준공), 산울(1,752명, '27.5월 준공), ▲(보령) 베이스리조트(268명)

③ 선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대회 운영서비스 제공

- **(식음료/숙박)** 선수단(9.1천여 명), 국내외 심판진(1.5천여 명), FISU 관계자(0.5천여 명), 대회운영인력(25천여 명)에 대한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식음료 및 숙박 제공**
 - * ▲(식음료) 선수촌·경기장 식당 운영, 도시락 등 ▲(숙박) FISU·심판진 호텔 객실 확보, 숙박 대행업체 선정(마이스링크, '26.7.)을 통한 대상자별 객실 배정 추진
- **(수송)** 입출국에서부터 개폐회식, 경기장·훈련장까지 **편안하고 차질 없는 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26.12.)
- **(의료)** 철저한 사전 방역,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사전 차단** 및 선수촌 진료소(의사 상주)·지정 병원 운영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 **(폭염/안전)** 폭염·집중호우 등 위험요인 대응 **종합대책 수립**(~'26.12.)과 함께 테러 등 대회 안전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대테러·안전대책본부 구성*, '27.1.)
 - * 국정원, 군, 경찰, 소방, 4개 시도 등 구성

④ 다채로운 이벤트와 홍보를 통한 대회 열기 확산

- **(개회식/성화봉송)** '꺾이지 않는 흥(Unbreakable Vibe)' 주제로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개회식 연출 및 충청권 16개 도시 성화봉송 순회
 - * ▲(개회식) '27.8.1.(일) 19:30~, 대전월드컵경기장, ▲(폐회식) '27.8.12.(목) 19:30~, 세종충양공원, ▲(성화봉송) '27.6.30.(수)~8.1.(월), 1,460km, 2,027여 명 주자 참여
- **(대회붐업)** 온라인·방송·옥외 등 다각적 매체와 지자체·부처 협력을 통해 **맞춤형·국민체감형 홍보**를 지속, 대국민 체감 대회 붐업 조성
 - * KTX 및 충청·수도권 광역버스 홍보영상 송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전국 민간 전광판(94개소) 활용 홍보 추진
- **(관중/입장권)** 입장권 판매 전략 다각화(얼리버드 10~30% 할인, B2B 등) 및 지역 연계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중 유치 목표(67.4만명) 달성 추진

⑤ 대회 준비 현안 적극 대응

- **(예산/후원)** 대회 성패와 안전에 직결된 **핵심 운영 예산**('27년 정부안 미반영) 및 **기업 후원 추가 확보 추진**
 - * ▲(대회예산 추가 소요) 선수촌, 보안·수송 등을 위해 370억원(국비 111억원) 확보 필요, ▲(후원) 현재 후원목표액(300억원) 대비 47% 수준(141.4억원, 현금 12.1억원)
- **(방송)** 대회 주관방송사(JTBC) 기업회생절차 동향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